

D. H. 로렌스의 「사랑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현대문명비판

양 영 수*

목 차

- I. 서 론
- II. 본래적인 삶의 파괴 :
재럴드의 소유지향주의
- III. 본래적인 삶으로부터의 퇴행 :
구드룬의 예술지상주의
- IV. 결 론

I. 서 론

D. H. 로렌스라고 하면 에로티시즘문학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비인간화 문제를 붙들고 깊이 고뇌하면서 인간성 회복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해 본 현대 영문학사상 대표적인 휴머니즘 작가였다. 로렌스가 남녀간의 성애문제를 그의 주요한 작품소재로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가 보기에는 양성간의 애정문제야말로 현대문명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진단하기로는,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의 핵심은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사물의 소유관계처럼 천박해지고 있고 마치 재산이나 기계처럼 수단시되고 있다는 데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타락상을 개선하는 과제는 가장 강렬한 인간관계인 남녀관계의 애정문제부터 풀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로렌스 문학의 문명비평적 주제는, 구체적인 소재와 그 전개 양상이 다를 뿐, 그의 거의 모든 작품에 걸쳐서 발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이면서 그 대담하고 현란한 성애묘사로 유명한 「채터레이부인의 사랑」(*Lady Chatterley's Lover*)에서도 작가의식의 기저에 자리하는 기본적인 주제는,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이 살벌한 시대에 어떻게 인간본래적인 따뜻한 애정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였다.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 클리포드 남작은 로렌스가 보았던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현대적 인간성 상실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성불구자라는 사실로 인해 아내가 겪고 있을 삶의 포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광산회사의 경영으로 재산 늘리는 일에 골몰하는 비정한 남자였고, 그의 문명을 떨치게 한 문학작품들은 그 자신의 구체적인 삶과 한참 동떨어진 허위의식의 가공물이었다. 작가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남자 주인공 멜로즈는, 현대 산업사회의 타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명성에 대한 헛된 소유욕을 버리고 모든 사회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숲속 산지기로서의 은둔생활을 하다가 채터레이부인과 조우하여 이성간 애정의 따뜻함(tenderness)이 주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있는데, 이같이 현대문명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론자들을 로렌스의 소설에서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로렌스의 성장기 체험을 그리고 있는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의 주제는 얼른 보기에는 시대문제를 벗어난 것 같지만 이 작품 또한 날카로운 문명비판서로서의 면목을 지닌다. 성장기의 로렌스를 모델 인물로 하는 폴 모렐의 모친은 청교도적인 근검정신과 자본주의적인 계층상승욕구가 지나친 나머지, 방탕스럽지만 낭만적이고 호쾌한 남편에게 본성대로의 삶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가정분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신분이나 소유재산등 비본래적인 것에 대한 탐욕때문에 삶 자체의 향유를 포기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변천에 따른 남녀간 애정패턴의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편 『무지개』(The Rainbow)도 문명비판적인 안목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작품의 세 세대에 걸친 남자 주인공들의 성격변화와 그로 인한 애정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농사꾼인 1대 주인공 톰에게서 시작하여 도안사인 2대째의 윌리엄을 거쳐 공병장교인 3대째의 스크레벤스키로 내려올 수록 점점 더 높은 교육수준과 지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애정생활에 있어서는 아래 세대로 내려올 수록 소박한 정서의 즐거움이 점점 쇠퇴해지고, 탐욕과 허위의식에 찬 자아개념과 피상적인 애정욕구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자기실현으로서의 애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현대문명에 대한 로렌스의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무지개』의 속편으로 나온 장편소설 『사랑하는 여인들』(Women in Love)이다. 작품표제가 보여주듯이 이 장편은 몇몇 주인공들의 상이한 애정행로를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지만, 애정행로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것은 곧 상이한 인생관이고 이러한 인생관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현대 산업사회의 몇 가지 특징들이다. 이 작품에서 로렌스의 부정적인 문명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애정관계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주인공은 제럴드 크리치와 구드룬 브랭윈이다. 이들 두 남녀는 서로 상이한 인생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성격은 그것 자체가 현대 문명사회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남녀의 애정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내력을 더듬어 가는 일은 곧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비극적인 특징들을 밝히 나가는 일이 된다.

II. 본래적인 삶의 파괴 : 제럴드의 소유지향주의

이성간 애정관계의 이상적인 모랄을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로렌스 소설인 『사랑하는 여인들』을 문명비평적인 주제라는 각도에서 고찰할 때에 그 비평의 가장 날카로운 예봉이 겨누어져 있는 인물이 바로 제럴드 크리치이다. 제럴드는 비상한 수완과 의욕을 가지고 거대 광산회사를 경영하는 신체 건강하고 미남인 31세 청년이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사회참여의 활동과 그 성취의 보람에 있으며, 인간의 위대성은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에 있고, 역사 발전의 원리는 대립세력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경쟁에 있다.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공동체의식은 집단 구성원들의 결집력과 발전에너지 형성에 불가결하다고 믿는 그는 애국심을 주요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다. 그의 성격은 투쟁적이고 진취적인 데가 있지만, 기존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경시하지 않는 현실적응력도 갖추고 있다. 요컨대, 제럴드의 성격은 현대사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가질 만하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이 지닐 만한 매우 건설적인 공동체윤리와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관한 제럴드의 말을 발췌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진술들 가운데에서 그는 적극적인 생산활동과 자기확대적인 역사창조 행위 자체가 삶의 목적이며 종족간의 경쟁체제와 상업본능은 인간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You've got to start with material things, - - I suppose I live to work, to produce something, in so far as I am a purposive being. Apart from that, I live because I am living."

"Oh — [My life has been] finding out things for myself — and getting experiences — and making things go." (p. 50)

"A race may have its commercial aspect. In fact it must. It is like a family. You must make provision. And to make provision you have got to strive against other families, other nations. I don't see why you shouldn't." (pp. 22-3)

이렇게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청년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고, 제럴드와는 대조적으로 음험한 개인주의자이고 염세적인 현실도피자인 그의 친구 루퍼트 버킨의 사랑은 성공으로 끝난다는 아이러니 가운데에서 로렌스의 문명관의 비뚤린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의 분신 역할을 하는 버킨은 지독한 문명부정론자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사회로부터 간섭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지켜가는 일이고(First person, singular, is enough for me. p. 48), 그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여자와의 자유로운 사랑을 이루는 곳에 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과 직관을 비본래적인 이성과 지성에 의해 억압하는 기형적인 현대문명은 이미 막다른

1) D. H. Lawrence, *Women in Love* (New York: Viking Penguin Inc., 1976), p. 48.

*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용 표시는 이 책에 의한 것임.

끝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소멸시켜야 할 퇴물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Humanity is a dead letter. There will be a new embodiment, in a new way. Let humanity disappear as quick as possible. p. 52). 화려한 부잣집 사교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유식한 얘기들이 모두 위선과 가식에 찬 허풍이라고 느껴진 버킨이 그 파티 장소를 슬그머니 빠져나와 한적한 숲속의 우거진 풀잎속에 홀랑 벗은 알몸을 적시고 덩굴면서 원초적 감각의 환희를 맛보는 장면은 작가 자신의 자연회귀주의적인 문명관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버킨의 애정관은 인간의 삶의 엄연한 사회성과 역사성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있다. 그가 바라는 이른바 '탈인성적인 사랑'(impersonal love)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우주적인 생명력의 차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랑 체험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과거 경험이나 소속집단 같은 것을 불문에 부침으로써 사랑 행위의 영속성과 절대성을 지켜준다는 면은 있지만,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인간운명으로서의 상대적 삶의 기회에 무감각하는 백치의 사랑 같은 점이 느껴진다.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정서가 닿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개인세계가 있는 것이고, 이 순수한 자아세계 가운데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나 행동규범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There is a final me which is stark and impersonal and beyond responsibility. And it is there I would want to meet you — not in the emotional, loving plane — but there beyond, where there is no speech and no terms of agreement. pp. 137-8) 버킨의 탈인성적인 애정관은 지나치게 퇴행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반사회적이다.

지극히 반사회적인 애정관과 파괴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버킨의 애정관계가 성공적인 결말을 맺는 반면에, 긍정적인 문명관과 건설적인 공동체의식을 가진 제럴드의 애정관계가 불행하게 끝나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는 명백하다. 현대적인 문명사회의 특성에 적응하고 영합한다는 것은 곧 행복하고 참다운 애정관계를 불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제럴드가 시도했던 사랑이 결국은 그의 생애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그가 구드룬 같이 자기한테 부적합한 상대를 애인으로 택한다는 심미적 안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선택한 부적격자와의 애정과탄에 직면하여 자신의 심경을 수습하고 심기일전하지 못한다는 심성구조의 문제인데, 이들 두 가지 원인은 모두 현대 산업사회의 주된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제럴드와 구드룬사이에 애정이 싹트게 된 것은 이들 두 남녀가 모두 강한 지배욕과 소유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지향적인 애정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상대방을 자기 힘으로 지배, 소유하는 방식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강한 지배욕구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충족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을 느낀다.

탁월한 기업경영자인 제럴드에게 있어서, 자연력을 정복하여 인간의 지배력 아래에 두고(And it was his will to subjugate Matter to his own ends. p. 216), 번영하는 광산회사의 거대한 생산조직과 충성스러운 노동자 집단에 대해 일사불란한 통제력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의미의 바탕이었으며 그의 체질에 녹아 있는 생활신조였다. 제럴드의 강한 지배의지가 구드룬의 심중에 확실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의 난폭한 말부림 장면에서부터이다. 구드룬과 어울러 자매가 어느 날 시골 철로길 건널목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치려던 제럴드가 갑자기 앞에 들이닥친 기차의 굉음소리에 놀라 날뛰는 말을 잔등에 피가 배일 정도로 잔혹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자 구드룬은 그의 비범한 용기에 탄성을 발하면서 그가 느끼고 있을 자부심을 부러워한다. 한편 구드룬에 대한 제럴드의 애정이 싹트게 된 것도 그녀의 당차고 매서운 개성을 확인하고서이다. 크리치가(家)에서 연례행사로 치르는 마을 잔치가 있던 날 구드룬은 제럴드 소유의 사나운 황소들 앞에서 겁도 없이 담대한 무용체조를 해 보여 그 짐승들의 공격을 막고 있고, 그 황소들 중 몇 마리를 달라는 그녀의 당돌한 요구를 제럴드가 거절하자 느닷없이 그의 면상을 후려치는데, 이같이 응골찬 담력과 공격행위가 그로 하여금 자기심중의 사랑을 토로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제럴드는 사랑의 상대로서 구드룬을 선택한 다음에 그녀를 자기 동생의 미술 가정교사로 초빙하는 등 애정교류의 여러 경로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동안 구드룬의 존재는 제럴드의 삶의 의미형성에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급기야 부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구심점을 상실하게 된 그에게 있어서는, 그녀와의 애정이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해 줄 유일한 안식처로까지 느껴지게 된다.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던 어느 날 밤 제럴드는 부친의 묘소를 찾아갔던 힘없는 발길을 돌려 시골 숲과 벌판을 정처없이 헤맨 끝에 진흙 투성이가 된 구둣발로 고이 잠든 구드룬의 침실에 잠입하여 설부른 밀회의 정사를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삶의 구원자처럼 여겨지던 한 여자와의 사랑은 결국 그의 삶의 무자비한 파괴자였음이 드러난다. 버킨-어슐러 커플이 새 희망을 다짐하는 신혼여행 길에 알프스 산기슭에 찾아 들 때 제럴드-구드룬 커플도 같이 합류를 하지만, 이들이 아직 사랑의 확신을 얻지 못하던 차에 구드룬의 예술가적 애정욕구를 채워줄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인 조각가 뢰르케의 모멸적인 조소 앞에서 제럴드는, 삶의 깊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여 눈 덮인 산속을 향하여 자멸의 길을 떠나고 만다.

한 여자로부터의 사랑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여 죽음을 택하기에 이르는 제럴드의 연애지상주의적인 행동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서두에 나오는 버킨과의 대화 장면 가운데에서, 제럴드는 한 여자와의 '완전한 결합'(perfect union with woman, ultimate marriage)을 자신의 지상과제로 삼는다는 버킨의 말을 비웃으면서 끊임없는 사회활동과 성취의 보람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일 개 여자가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I don't believe a woman, and nothing but a woman, will ever make my life." p.50), 자기 생활의 중심은 여자와의 사랑 같은 것에 있지 않고 사회체제에 내재하는 질서에 의해 결정된다고(It is artificially held together by the social mechanism, p.50)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자와의 실연 충격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제럴드의 심약한 성격을 논하면서 우리는 그의 자아세계 확립의 기반이 독립자존적으로 서있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심찬 사업가로서의 생활철학으로는, 물질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무언가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정복, 소유, 지배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사랑의 의미를 홀시하던 제럴드가 자신의 삶의 의미 전체를 한 여자와의 사랑에다 바치게 된 연유를 현대 산업사회의 자기본위적 소유논리에다 결부시키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럴드가 보여주는 소유지향적 애정욕구의 좌절을 그의 친구 버킨의 독립적인 애정모탈과 비교할 때에 그 문명사적인 의미 맥락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버킨에 의하면, 개인 각자의 자기 세계는 마치 하늘의 별들이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존재로서 제각기 독립해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애정관계도 인간존재의 이같은 독립자존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킨이 어슐러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애정모탈은 그의 강인한 자아개념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핵심을 향하여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본래적인 삶에 대한 파괴로 느껴지는 버킨의 자기 중심적 애정관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극단적 개인주의 철학을 다음의 인용문들 가운데에서 엿볼 수 있다. 참다운 인간존재의 바탕은 자기 이외의 그 누구에게서도 침해받지 않는 독자적인 개체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야하고, 이렇게 볼 때 결혼식과 같이 전통적 격식에 구애되기 쉬운 자리에서 사회관습을 전혀 도외시하고 순간 순간의 충동에 따라 터져나오는 행위는 인간성에 잠재한 가능성을 과감히 실험해 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시킨다고 하는 매우 장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버킨의 개인주의 강령 선언과도 같은 다음 인용문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제럴드의 여동생 Laura가 자기의 결혼식 장소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일탈 행위를 칭찬하면서 제럴드처럼 맹목적으로 관습에 추종하는 다수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말이다.

"I think it was perfect good form in Laura to bolt from Lupton to the church door. It was almost a masterpiece in good form. It'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act spontaneously on one's impulses — and it's the only really gentlemanly thing to do — . I should like them to like the purely individual thing in themselves, which makes them act in singleness. And they only like to do the collective thing." (p. 27)

"But I, myself, who am myself, what have I to do with equality with any other man or woman? In the spirit, I am as separate as one star is from another, as different in quality and quantity. Establish a state on that. One man isn't any better than another, not because they are equal, but because they are intrinsically other, (so) that there is no term of comparison." (pp. 96~7)

버킨은 그를 사랑하는 어슐러가 그의 자아세계를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근접해 오는 것을 경계한다. 그는 남녀간의 애정이 개인세계의 자유와 고유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두 사람의 삶을 병합시키려 드는 것을 혐오하며, 두 개의 순수자아가 제각기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양극간의 균형감과 냉정한 분별의식을 잃지 말아야 자기실현적인 애정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애정 상대자가 보이는 반응에 의해 자신의 삶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독립자존성이야말로 자기의 정신세계가 제 발로 설 수 있는 건강성을 반증하는 것이요, 자기의 개성적인 삶을 자유롭게 개척하고 풍부케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이 버킨

의 애정모탈은, 이성간 결합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욕구 때문에 자유로운 자기세계 개발의 폭이 축소되는 것을 배척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남자의 삶속으로 파고 들면서 그의 심중에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드는 애정관계가 버킨에게는 여자의 탐욕스러운 소유욕과 지배욕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견디기 어려운 혐오감까지 일으키고 있다.

He wanted so much to be free, not under the compulsion of any need for unification, or tortured by unsatisfied desire. Desire and aspiration should find their object without all this torture. - - - And he wanted to be with Ursula as free as with himself, single and clear and cool, yet balanced, polarised with her. The merging, the clutching, the mingling of love was become madly abhorrent to him. But it seemed to him, woman was always so horrible and clutching, she had such a lust for possession, a greed of self-importance in love. She wanted to have, to own, to control, to be dominant. (pp.191-2).

버킨과 어슐러의 애정관계가 그 많은 장애를 겪고서도 최종적인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원인을 버킨의 투철한 개인주의 애정관에서 찾는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매우 시사적인 대가 있다. 그는 비록 사랑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꼽는 연애이상주의자이지만, 인간존재의 운명적인 고독성을 투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간의 결합과정에서 생기는 대립과 갈등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소유욕과 타인에 대한 권력욕을 조장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체제에서 세뇌 당하여 독립적 개체적인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상실한 제럴드가 고독에 대한 적절한 내성(耐性)을 기르지 못하여 구드룬으로부터의 사랑의 배신을 감당해 내지 못한 사실은 현대문명의 영향권 밖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버킨의 깨끗한 사랑 방식과 대비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한 여자와의 사랑 같은 것에다 걸지 않겠다고 호언했던 제럴드가 자신의 구애에 대한 구드룬으로부터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절치부심하게 된 것은 구드룬이 없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그만큼 확신이 서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된다고 할 때, 그러한 남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삶의 확신이 그만큼 박약하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연장해 볼 때, 제럴드가 그렇게 경쟁적인 사업의욕이 왕성하고 사회적인 성취욕구가 강한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감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예감 때문이고, 인간에 대한 그의 공격적인 지배욕과 사업경영의 집요한 성취욕까지도 삶의 의미의 바탕을 상실한 자신의 무력감을 메우기 위함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명한 로렌스 연구가 H. M. 달레스키(Daleski)를 꼽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제럴드가 비록 자기 입으로는 자신은 여성관계 문제를 비사회적인 것으로 본다고(Between me and a woman, the social question does not enter. It is my own affair. p.96)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실존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空洞感에서부터 그를 구해주는 것은 여자와의 사랑이라고 한다. 또한, 다음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제럴드가 사업경영의

성공에서 얻은 내적인 허무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드룬의 애정이 필요했다는 견해를 지닌 비평가로서는 샬롬 라크만(Shalom Rachman)도 꼽을 수 있다.

Women function as safety valves against the perfection of the machine he has created, providing him with most satisfactory relief from the frightening sense of his own nullity.²⁾

Gerald's dependence [on Gudrun] is obviously the result of his inability to achieve a self of his own. - - It is because he does not believe in his own single self that he is forced to seek reinforcement against a collapse into the void.³⁾

When he has succeeded in perfecting the system of the collieries to the point at which he himself is almost redundant, the pressure within becomes unbearable. - - When the torture becomes unbearable, Gerald turns to Gudrun for sympathy and salvation.⁴⁾

그러나, 여성의 애정을 얻으려는 제럴드의 욕구는, 광산개발에 대한 그의 기업의욕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장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기파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그의 비극이 생겨난다는 것이 달레스키의 지적이다. 제럴드가 도입한 광산개발 시스템은 너무나 완전하고 강대하여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자기 회사 시스템의 지배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우수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광산 밖으로 나오면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 같은 무력감이 들 정도로(He finds that, outside the mines, he finds no identity. p.147)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유물에 의해 거꾸로 소유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리가 그의 애정관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달레스키에 의하면, 구드룬에 대한 제럴드의 지배욕은 그 철저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녀에 대해 어린애처럼 순종하고 의지하려는 욕망을 낳음으로써 자기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띄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불안해진 그의 실존의식은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그 자신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달레스키는 이 작품 주인공들의 이같이 역설적인 애정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격리 속의 결합'이라는 救命袋를 붙잡은 버킨과 어슬러는 애정의 難破船을 포기하는 반면에, 애정 상대를 서로 죽이려는 파괴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제럴드와 구드룬은 그 배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Gerald's will to dominate has as a disturbing counterpart a child-like tendency to be utterly dependent on Gudrun, as his cleaving intensely to her, 'like a child at the breast', makes clear. - - His dependence on her becomes a continued, harassingly gnawing, and humiliating need. It is only by taking her life or by giving up his own that he can ultimately free himself.⁵⁾

Birkin and Ursula, clinging to the life preserver of their own 'unison in separateness',

2) H. M. Daleski, *The Forked Flame* (Madison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p.152.

3) *ibid.*, p.159.

4) Shalom Rachman, "Art and Value in D.H. Lawrence's *Women in Love*". 金正梅 註釋 D.H. Lawrence's *Women in Love* with Essays in Criticism (서울 : 신아사), p.788.

5) *op. cit.*, p.159.

abandon ship; Gerald and Gudrun, by trying to destroy each other, symbolically prefigure in themselves the desire for death of those who do not attempt to leave the ship.”

Ⅲ. 본래적인 삶으로부터의 퇴행 : 구드룬의 예술지상주의

제럴드와 구드룬 간의 불행한 러브스토리의 원인이 된 현대문명적인 소유지향성은 남자 쪽에서만 아니라 여자 쪽에서도 발견된다. 제럴드의 소유지향성이 자연정복적인 생산증대와 공격적인 상호경쟁이라고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구드룬의 소유지향성은 학문과 예술의 현대적인 분업화 현상에 결부된 것이다. 전자의 소유지향성이 주로 외면적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것은 내면적 인지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열성적인 화가 지망생인 구드룬은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항상 작품 소재로서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려 든다. 자연히 상식적인 일상생활은 염증의 대상이 되고 파격적이고 모험적인 사건을 즐긴다. 말하자면, 대자연과도 같은 삶의 본류에 몸 전체를 던져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외곽지대에 비켜서서 본래적인 삶의 흐름을 사안시(斜眼視)하는 것이다. (Always this desolating agonised feeling, that she was outside of life, an onlooker, caused Gudrun to suffer from a sense of her own negation. p. 157) 현대사회에서 고도로 분업화된 예술이 삶의 실상과 분리되어 나간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사회적이고 현대문명적인 성질의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유욕과 자기확대욕구 때문에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사랑의 의미가 변질되는 모습은 「사랑하는 여인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문명비평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 가운데에서 대조적인 애정관을 보여주는 두 쌍의 남녀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제럴드는 구드룬과 비슷하고 버킨은 어슬러와 비슷한 애정관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생관의 특성에 연유하고 있다. 제럴드 - 구드룬 커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험을 풍부하게 넓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열차 안에서’(In the Train)라는 챕터에 나오는 제럴드와 버킨간의 열띤 논쟁에서 제럴드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친구의 질문에 답하여 ‘나 스스로 세상 모습을 더 많이 둘러보고 많은 경험을 얻고 역사를 진척시키는 것’(‘finding out things for myself -- and getting experiences -- and making things go’ p. 50)이 자기의 목표라고 대답한다. 경험의 확대는 구드룬의 인생관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이 여자는 결혼하는 것조차도 부부간의 농도 짙은 사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확대적인 세계인식의 차원에서 ‘체험하려고’ 한다(‘- - - one needs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married.’ p. 1). 이에 반해 버킨 - 어슬러 커플은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인생의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 버킨은, 사랑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다고(‘I want the finality of love.’ p. 50) 말하고 있으며, 어슬러는 모든 경험의 총합적인 목적으로서의 결혼(‘the end of experience’ p. 1)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6) *ibid.*, p. 128.

구드룬에게 있어서의 자기확대 욕구가 예술적인 세계인식의 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들」의 뒷 부분에 이르러서야 분명히 밝혀진다. 이 작품 앞 부분에서는 구드룬에 대한 대체적인 성격묘사가, 그녀의 대담한 공격성과 지배의지에 대해서만 쓰여지고 있다. 그러던 것이 이 작품의 끝 부분에 와서 구드룬이 독일인 조각가 뢰르케를 만나면서부터는 그녀의 예술지상주의적인 면모가 확연히 부각되면서 그 복잡한 성격에 대한 독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일으킨다. 인간의 성격구조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 둘 적에, 구드룬의 대담한 공격행위에 나타나는 지배의지가 필시 그녀의 예술가적인 습성과 기질에 연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성실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한 걸음 옆으로 비껴선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멋지게 그려내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오만한 자부심을 부추길 수가 있다. 작품창작의 열의가 습성화된다는 것은 세계인식에 대한 왕성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고, 인식능력은 대상에 대한 소유와 지배의 강력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구드룬의 예술적인 인식욕구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녀가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그녀는 결혼식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되어있지 않고, 자기의 예술창작에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극히 자아중심적이고 편협된 의식상태를 보여준다. 그녀의 새로운 인식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사람은 호기심을 끌지 못하고, 말하자면 '다 알아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끝장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구드룬이 제럴드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이 남자의 분위기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인식욕구를 새롭게 자극하는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Gudrun watched them closely, with objective curiosity. She saw each one as a complete figure, like a character in a book, or a subject in a picture, or a marionette in a theatre, a finished creation. - - - She knew them, they were finished, sealed and stamped and finished with, for her. There was none that had anything unknown, unresolved, until the Criches themselves began to appear. Then her interest was piqued. Here was something not quite so precluded. (p. 8)

제럴드와의 교제가 두터워진 다음에 그의 포옹과 애무를 받는 순간에도 그녀에 대한 심리묘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는 남자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뜻의 단어이다. 그러나 정작 구드룬의 예술가적인 인생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알프스산맥 겨울 유람지에서 뢰르케를 만나면서부터이다. 못 생기고 가냘프고 키도 작은 이 남자가 구드룬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조각가가 펼치는 확고한 예술지상주의 철학 때문이었다. 뢰르케는 그의 말 그림을 본 어술러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짜 말이라고 핀잔을 주자, 예술작품의 창작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세계의 행위와는 다르고, 예술세계는 현실적인 사실 여하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데(- it is part of a work of art, it has no relation to anything outside that work of art. - - you must not confuse the relative work of ac-

tion with the absolute world of art. p.421), 이같이 확신에 찬 그의 예술관이 구드룬의 심중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뢰르케의 영향에 힘입어 예술작품의 창작은 현실적인 인생에서 독립된 것이라고 믿게 된 구드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술을 위하여 인생을 희생하려고 한다. 자기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훌륭한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문제이고, 정작에 자기 삶의 다른 구성요소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Life doesn't really matter -- it is one's art which is central. p.439)는 역설을 낳게 되는 것이다. 예술적인 인식과 창작을 인생 자체보다 더 높은 상위에 올려 놓는 사람이 한 남자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애정의 대상이 새로운 세계인식과 열정을 촉발시키는 자극제 또는 연료와 같은 위치로 떨어질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After all, what was the lover but fuel for the transport of this subtle knowledge, for a female art, the art of pure, perfect knowledge in sensuous understanding. p.440). 이런 여자에게서 연인은 속에 있는 단물을 빨아먹은 다음에 버려지는 과일 껍데기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제럴드에 대한 구드룬의 애정이 급속히 식어지는 것도 뢰르케의 등장 이후부터이다. 뢰르케에 비하면 제럴드의 생활감각은 너무나 가시적인 현실과 상식의 범주에 갇혀 있다고 느껴진 것이다. 그러나, 뢰르케와의 교제가 상당 기간 이어진 다음에 이 남자에게서도 그럴 듯한 작품소재가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에 구드룬은 미련없이 더 신선한 취재원을 찾아서 다른 남자에게로 애정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사실상 뢰르케는 기분 내키는대로 모자를 바꾸어 쓰듯이 애인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What does it matter whether I wear this hat or another. So love. I needn't wear a hat at all, only for convenience. Neither need I love except for convenience." p.450), 구드룬 역시 여기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눈덮인 알프스산맥 골짜기로 걸어 들어갔던 제럴드가 꿈꿨던 얼어붙은 시체로 구드룬의 눈 앞에 운반되어 왔을 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림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주위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자기 방의 문을 닫아 그들을 피하고 있으며,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의 집행도 급히 달려온 버킨-어슬러 부부에게 맡겨버리고 있음을 볼 때, 그녀의 심성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일 것인지 헤아림이 간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은 그림 속에서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슬러가 사랑의 관조보다 사랑의 실현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리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식하고 그림그리는 일은 그녀에게 관심 밖의 일이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삶의 실체에 더욱 가까워 지는 일이다. 버킨과의 애정관계에서 어슬러는 자기의 삶을 송두리채 바쳐 결합하는 완전한 사랑을 회구함으로써 버킨에게서 오히려 자기방어적인 경계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랑을 거친 다음에는 그녀까지도 인생은 남년간의 사랑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각에 도달하고 있다. 구드룬이 애정 상대자를 마치 상호투쟁의 적수처럼 두려워 함에 반해, 열정적인 삶과 사랑에 대해 그것 자체를 위해 성실하려는 태도인 어슬러는 사랑하는 남자의 소망과 용기에 따뜻한 동정의 손길을 보내고자 한다. (Ursula saw her men as

sons, pitied their yearning and admired their courage. ...But to Gudrun they were the opposite camp. She feared them, and despised them. p.255)

IV. 결 론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의 각도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인간생활의 편리를 위해 발명된 기계들에 의해 인간생활이 거꾸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할 수도 있고, 자연정복의 욕구가 지나친 결과로 생겨난 자연파괴와 환경공해 문제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문명비판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수인들에게 관찰이 가능한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판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쉽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의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은 다른 문명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종류의 문제는 그렇게 뚜렷이 관찰되지도 않거니와 보는 이에 따라서 의견이 구구해 질 수 밖에 없다. 로렌스는 바로 이렇게 복잡미묘하고 애매모호한 성격의 문명현상을 문제시하고 있다.

로렌스는 현대문명의 여러 가지 비인간화 문제들 중에서 산업주의적인 경쟁원리와 예술지상주의적인 창작원리를 비판 대상으로 삼고 이를 題材로 하여 『사랑하는 여인들』을 썼지만, 이 작품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제럴드의 경쟁적인 소유욕과 구드룬의 예술적인 창작욕구는 어떻게 보면 문명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면서 모든 인간다운 문화창조의 원천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소유욕구는 비단 물질적인 차원의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이루어낸 유형 무형의 값진 문화유산 치고 소유욕의 충족 동기와 전혀 무관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것은 인간의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부와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능력, 또는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객관적인 소유 대상으로서의 의미관련이 있음으로써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물질적인 재화와 사업 경영의 능력을 대상으로 했던 제럴드의 소유욕이 타성화되고 고질화된 결과 나중에는 한 여자의 애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케 할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이러한 심리 과정에서 이렇다 할 부도덕성이나 비열성을 보이지 않는 제럴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난의 구실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럴드와는 대조적으로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인 폐쇄주의자인 버킨의 애정행로가 비교적 순탄하고 건실했던 점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문명현상 자체 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숙명적인 불행 같은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라크만에 의하면, 제럴드의 죽음은, 영웅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인간성에 내재하는 비극적 결함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극적인 효과인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자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 작품은 시대의 보편적인 인간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문명비평으로서의 의미도 희박하다고 한다.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제럴드에 대한 성격묘사는 현대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성취에 맞설 만한 함축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 비평가의 견해이다. 그러나, 제럴드가 갖고 있는 바의 개척자적인 강인한 지배욕과 투철한

공동체 정신을 현대의 거대한 산업사회를 건설한 원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자기통제력으로서의 내면적 신념의 빈곤이라는 결함때문에 아까운 삶의 좌절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제럴드의 죽음은 고전적인 의미의 장엄한 비극이고, 인간의 숙명적인 불행이 주는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자아낸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즉, 제럴드라는 인간형 가운데에서, 외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은 강하지만 내적인 자아를 통제하는 신념과 철학은 빈약한 현대인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메리 프리만의 말처럼, 제럴드가 장악한 외면적인 지배력은 내면적 자아의 허위성과 모순성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삶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Intuitively he grasps power as the only reality in a world of sham and inward contradiction.)”

To say that the diagnosis of the malady of Gerald's psyche "can become that of the malady of a civilization" is to overstate the case in a grave manner. - - For a diagnosis of the malady of our civilization one would need far greater judgment than Lawrence ever possessed. Our civilization has greater knowledge and greater awareness than any of the preceding ones. - - To make undue claims for any of its achievements without attempting to see them for what they are is only to aggravate the malady and not contribute in the slightest degree to its health.”

물론, 버킨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성공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제럴드처럼 건강한 공동체 윤리의식의 소유자가 비참한 사랑의 종말을 고하는 이 작품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현대문명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찬사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지나친 비관주의적 문명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현대 사회에 대해 뿌리깊은 절망감과 반감을 품은 작가 자신의 내면 심리의 생경한 표출이라는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적 지배욕구 및 그것이 갖는 역설적인 배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예리한 문명비판의 면모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 역시 그 지나친 암울성 때문에 건강한 사회 건설의 이념 구실을 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스콧 샌더즈(Scott Sanders)가 지적하고 있듯이, 로렌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었던 극심한 삶의 좌절이 별다른 예술적 혹은 철학적인 여과과정을 거침이 없이 주인공들의 성격설정에 그대로 투영됨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지니는 문명비판서로서의 함축성이 크게 감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Women in Love should be read, then, not as diagnosis, not as blueprint for renewed human relations, but as the anguished response to a world-wide trauma by an isolated and frustrated man, albeit a man of genius, a man at once compassionate and contemptuous towards his fellows, a man seized in turn by revolutionary and misanthropic despair.”⁹⁾

7) Mary Freeman, *D. 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55), p. 61.

8) op. cit., p. 793.

9) Scott Sanders, *D. H. Lawrence: The World of the Five Major Novel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3), p. 134.

구드룬이 보여주는 삶과 예술의 괴리현상도 인간의 문명현상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무언가 발전적인 요소를 의식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卽自的인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對自的인 자아 형성의 과정이 요청되게 마련인 것이다. 학문에 열중한다는 것도, 직접적인 생활세계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구드룬과 뢰르케가 보여주는 예술지상주의적인 삶의 분리와 매우 흡사한 데가 있다. 뢰르케가 현실세계에서 볼 수 없는 말의 그림을 그렸듯이 현대의 수많은 학문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학문을 위한 학문'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만 현대에 이르러 그 경향이 심해졌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고래로부터의 인간 문명의 역사는 이같은 학문적 열정가들에 힘입어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로렌스가 「사랑하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하고 있는 문명비판은 어쩌면 인간의 불가피한 운명에 대한 속절없는 비판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지워진 불행이라고 해서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그의 비판은 무익한 것이 아니며, 운명적인 불행은 흔히 그냥 간과되어 버림으로써 더욱 큰 불행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문명비판은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여 져야 할 것이다. 로렌스는, 인간의 삶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 가장 농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소재로 사용하여, 경쟁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과 사랑의 또 다른 가능성이 탄탄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과, 학문이나 예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자체를 위한 인생이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Summary

Criticism on Modern Civilization in
D. H. Lawrence's *Women in Love*

Yang Young-Soo

Most of D. H. Lawrence's novels deal with love affairs between men and women, but they can also be interpreted as criticism on the modern civilization, of which *Women in Love* is no exception. Two major characters in this novel, Gerald and Gudrun, can be seen as the objects of critical discussion on contemporary civilization, for they are representative of two major traits of the modern life-style shared by social and cultural leaders.

Gerald, who appears as an 'industrial magnate', exemplifies the strong will to power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e is eager to subjugate natural power to his will and to exercise complete control over the laborers of his mining company. His extraordinary ability as a mechanical leader in business goes so far as to make his existence redundant, which causes his deep frustration as a human being. He turns to Gudrun's dallying love for salvation from his feeling of futility. But Gudrun is a ruthless woman who needs no love from a man. She gradually turns on him and grows to take to Loerke, a German sculptor, for she is a self-assured woman who can sacrifice her own love for artistic creation.

Gerald's despair in love drives him to nearly throttle Gudrun. He wakes up and goes into the Alps only to be snowed up. Both of them get ruined in their love just because they are overly faithful to their strong will to power or artistic creativity, which can be seen as the basic well-spring of flourishing modern society. It is rather ironic that Birkin and Ursular, two other major characters in this novel, should be able to get along comparatively well in their love affair in spite of the incipient hardship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of their love morality, for they are free of such strong will as to participate self-assertively in the modern society, whether industrial or artistic. They want to retreat completely from it, considering it quite meaningless. Their love for each other is such that they don't have misgivings over being separated from each other, or, conversely, being too close to each other because they believe in love as independent as between constellations.

It is regrettable that *Women in Love* should have been affected so negatively by the

author's own dreary experiences in the course of writing it as to be a less persuasive diagnosis of malady of modern civilization. But the picture of Gerald and Gudrun is a vivid and plausible creation of some strong-willed character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a symbolic manifest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in the diversity of the contemporary life-style, while Birkin and Ursula are the extreme cases of pessimistic and secluded individualism.